

5·18 왜곡정보 원천 차단하고 명예 회복

5·18대책위, 북한군 개입설 주장 5명 형사고발

‘일베’ 악의적 게시물 올린 네티즌도 책임 물어 일부 종편 방송사에 위자료 청구 손해 소송 추진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가 일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출연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탈북자, 교수, 변호사 등 5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대책위는 이번 주 안으로 고소장을 관

주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5·18 당시 전남도청을 지킨 시민군 생존자 및 사망한 시민군의 유족을 고소인으로 하고, 피고소인은 종편에 출연해 “전남도청을 지킨 시민군이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5명으로 하기로 했다.

혐의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이며, 조사는 광주지검이 맡거나 피고 주소지 검찰로 이관될 수도 있다.

이번 대책위의 결정은 1단계로 5·18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정보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것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 1단계 조치 안에는 극우보수 세력의 주장으로 일관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에 악의적인 게시물 올린 네티즌도 해당된다.

대책위 측은 일베에 5·18 당시 사진과 함께 악의적인 댓글이나 표제어 쓴 게시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이미 상당부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2단계로 이 같은 왜곡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종편 방송사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 조치에 대한 결론이 나온 후가 아니라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곧바로 민사소송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하에 대한 공분이 가라앉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대책위의 입장이다.

민사소송은 5·18 당시 피해자 및 유족 등 가운데 원고를 모집해 추진하며, 종편과 일간베스트는 물론 일부 인터넷 언론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1인당 위자료 액수나 원고 수는 조만간 결정해 이달 내로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임선숙 지부장은 “이번 고소·고발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지부장은 “범으로도 인정되고 제도적으로 정리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바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명명백백하게 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9분** **해질녘 19시 43분** **달돋이 01시 47분** **달질 14시 47분**

한여름 더위
더위와 자외선 대비하세요.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17/29℃
목포	맑음	15/25℃
여수	맑음	17/23℃
나주	맑음	15/29℃
완도	맑음	15/26℃
구례	맑음	15/30℃
강진	맑음	15/27℃
해남	맑음	15/28℃
장흥	맑음	15/28℃
순천	맑음	14/28℃
영광	맑음	14/27℃
진도	맑음	15/26℃
전주	맑음	16/30℃
군산	맑음	14/24℃
남원	맑음	15/29℃
옥산도	맑음	14/20℃

바다	중랑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경고	위험	낮음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화)	5(수)	6(목)	7(금)	8(토)	9(일)
날씨						
최저/최고	17/30	18/31	18/31	18/29	19/27	20/27

기간제 교사

인력풀서 뽑는다

시도교육청, 2학기부터

오는 2학기부터 전국 학교는 시도교육청이 검증을 거쳐 구성한 기간제교사 인력풀에서 기간제 교사를 뽑는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의 자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운영 및 연수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개전형 등을 하고 합격자의 신원·범죄경력 등을 조회해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만든다. 인력풀은 오는 2학기부터 운영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한다.

학교장은 기간제 교사의 근무상황, 수업실적, 담임 여부, 학생생활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력풀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학교에 임용된 모든 기간제 교사는 의무적으로 소양 및 직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용(예정)자에 대해 우선 연수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연수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이 좋아라, 아이 시원해라”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29.4도까지 올라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린 2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한 대형마트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때 이른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울 수시 전형 6가지로 단순화

학생부·입학사정관·논술·실기·적성·면접 등...수험생 혼란 줄듯

2200개가 넘는 교과와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줬던 대학 수시모집 전형 명칭이 6가지로 단순화된다.

교육부는 올해 9월 시작되는 2014 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시모집 전형명칭에 대한 부제설정 기준’을 최근 확정해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정한 전형명칭에 교육부가 마련한 부

제를 달아 오는 7월까지 한국대학교 입학협의회(이하 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부제는 비중있게 반영하는 전형요소에서 이름을 따 ▲학생부 중심 ▲입학사정관(학생부 중심) ▲논술 중심 ▲실기·적성(특기)·면접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실기·적성(특기)·면접은 다시 ▲실기 중심, ▲적성(특기) 중심, ▲면

접 중심으로 세분화돼 실제로는 6가지가 된다. 전형요소가 두 가지 이상이면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이 부제가 된다.

예를 들어 조형예술학과에서 디자인기자를 학생부 40%, 실기 60%로 선발하면 이 입학전형의 부제는 ‘실기 중심’이 된다. 교육부는 전형요소 반영비율이 비슷한 경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전형요소 포함되는 경우 대학별고사의 반영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대학별 고사의 비중을 충분히 고려해 부제를 정하도록 했다. 상위권 대학의 인과과에서 학생부 60%, 논술 40%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했을 때, 지원자 대부분이 1등급이라면 당락이 논술에서 갈릴 수 있으므로 이때는 실제 비중을 고려해 부제를 ‘학생부 중심’이 아니라 ‘논술 중심’으로 기재하라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국경과제인 대입전형 간소화 시행에 앞서 복잡한 전형명칭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PC방 전면 금연 사실상 6개월 유예

연쇄 도산 공포에 시달리던 PC방 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가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한 법률의 시행을 사실상 6개월가량 뒤로 늦췄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이 주요 고객인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둬으로써 단속에서 걸리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법시행을 실제로 유예한 것이다.

그간 PC방 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금연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복지부가 PC방 전면금연에 나선 것은 담배는 일단 배우면 끊기 어려운 만큼 어린 나이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박남수 육사 교장 사의

교내 성폭행 사건 책임

육사출신 여군 대위 총상 사망

박남수(58·육사35기) 육군사관학교 교장(중장)이 최근 발생한 교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역의사를 표명했다고 육군이 2일 밝혔다.

육사에서는 생도 축제 기간인 지난 22일 지도교수가 주관한 전공학과 점

심 식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돌리는 음주로 취기 상태였던 남자 삼급생도가 술에 취한 여자 하급생도를 생활관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육사 출신 여군 대위가 지난 31일 총상을 입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 중이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31일 오전 8시10분께 홍보(30) 여군 대위가 경기 의사를 표명했다고 육군이 2일 밝혔다. 육사에서는 생도 축제 기간인 지난 22일 지도교수가 주관한 전공학과 점

첫날부터 짹~한 신나는 제주여행
광주 출·도착 제주도 2박3일 단하루 출발

왕복 및 일정 포함 요금
6월14일 출발!
[금요일]
147,000원

6월 14일 (금요일 출발) 단 하루 147,000원(6인 1실)~광주 출도착 상품

첫날 광주역 출발, 목포역 도착, 제주항 도착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도개비도로(신비의 도로)
수목원 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

둘째날 한라산 자연관광(성판악 휴게소, 숲속의 터널 등 516도로경유)
쇠소깍/새섬과 새연교/천지연폭포/석부작테마공원
/약천사/올레8코스 1시간 체험

세째날 선녀와 나무꾼/ 승마체험/성음민속마을
섬지코지/종달리 해안도로 경유 해녀촌 및 농수산물 쇼핑
광주 송정리역 도착

- 불포함사항 : 기사 가이드팁(1인 3일 1만원), 석식 2회
- 현지직불관광 : 산방산유람선(15,000원)

한일카훼리 대리점, 씨월드고속훼리 대리점
남해고속 장흥해운 취급점
제주배닷컴_www.jejube.com

NAVER 제주배닷컴 검색
여행 상담 ☎ 1644-2261

추억과 낭만이 있는 신상 제주여행

서틀 운행 및 편도요금

완도 래속선
[1시간40분 소요]
37,000원

목포 크루즈
[4시간20분 소요]
30,000원

광주-완도-제주항-완도-광주 체크 : 단체는 문의 후 확정, 완-제 제-완 편도는 문의 바람

- 서틀버스출발 : 06:00 **광천터미널** 내
- 서틀버스도착 : **완도 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됨
- 래 속 선 : **완도** 출발 09:00~10:40 / **제주** 출발 17:50~19:30
- 소요시간 : **1시간 40분**
- 래속선 +서틀버스 요금 : 편도 **37,000원**(항만세 포함 요금, 추가요금 없음)

광주-목포-제주항-목포-광주 체크 : 단체 불가, 함안읍 및 함인 대상지등 문의 바람

- 서틀버스출발 : 06:40 **광천터미널** 건너편 **e-편한세상** 앞
- 서틀버스도착 : **목포 국제항** 여객선 터미널 앞
- 크 루즈 : **목포** 출발 09:00~13:20 / **제주** 출발 17:00~21:30
- 소요시간 : **4시간 20분**
- 크루즈 +서틀버스 요금 : 편도 **30,000원**(항만세 포함 요금, 추가요금 없음)

한일카훼리 대리점, 씨월드고속훼리 대리점
남해고속 장흥해운 취급점
제주배닷컴_www.jejube.com

NAVER 제주배닷컴 검색
여행 상담 ☎ 1644-2261

제주여행 참가자분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1.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제주특산물 제공
2. 경품 추첨을 통해 가전제품 등 푸짐한 경품 제공 (총 참가자200명 이상시)